

학교안전과 담장허물기

School Safety and Wall Removal



권 제 중 / 대구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Kwon, Je-Joong / Assistant Professor, Daegu University
 kwonjejoong@daegu.ac.kr

1. 서론

학교주변을 비롯한 내·외부 공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유괴납치 및 성폭행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학교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죄불안 심리를 가중시켜 생활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CCTV중설,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확대, 배움터 지킴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출입구 주변 경비실과 경비인력 및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기계경비나 인적경비에 의한 감시로서 비용이 많이 들고 사후대처방식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통제를 통한 폐쇄적 디자인 적용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시설을 고립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범죄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2. 학교안전

2010년 충남 보령에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

폭행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9월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10대 청소년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낮 그것도 수업시간에 흉기를 들고 교실까지 들어갔을 정도로 학교의 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로 판단해 보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학교를 외부로부터 격리시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의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안뿐만 아니라 담 주변까지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했으며, 모든 CCTV는 학교 안전상황실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이상 동작이 감지되면 모니터에 경고불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학교 울타리와 교문 등에는 적외선 열 감지 시스템도 갖췄으며,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벽돌 담장 대신 학교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일명 ‘투명 담장’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은 물론, 담벼락 밑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도 예방하는 효과를 위해 건축환경 설계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외부인 난입을 막는 등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겠



* 출처: 연합뉴스

그림 1. K초등학교의 학교안전종합상황실과 S국제학교 경비실

학교는 과연 안전한 곳인가?

다는 취지였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앞으로 모든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학교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으며, 범죄예방 설계를 담은 ‘초등학교 시설 계획 지침서’를 마련해 초등학교의 신·증축, 기존 시설의 개·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학교설계 단계부터 범죄와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건물을 짓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다양한 해결방안 중에서도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으로 범죄의 두려움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¹⁾인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3. 학교 담장허물기

하지만, 약 10여 년 전에는 학교환경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 경향의 주장과 변화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보편화된 평생교육과 맞물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지역사회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지역사회와 공용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적절한 계획을 통해 평생교육을 학교에서 수용하는 것 역시 우리 학교가 가져야 할 책무 중 하나이며, 체육관,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등의 개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비슷한 취지에서 시작된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담장을 허물고 교내에 나무식재나 정자, 운동기구 같은 시설을 설치해 주변 경관 조성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아름다운 교정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변화를 시도했다.

학교 담장허물기는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의 향상

- 1)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범죄라는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범죄 유발 요인(기회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서 기계적, 인적 경비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기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취약요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범죄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출처: 시사인친/안동신문

그림 2. 학교 담장허물기를 실시한 인천 K초등학교와 안동 A초등학교

등의 기능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적 유대감 형성이라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기대되었다. 즉, 담장허물기는 도시 녹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지역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학교 담장허물기는 폐쇄된 담장으로 인한 삭막함을 없애 학교공간을 도심 속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쉼터 및 만남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 역시 높았다. 특히, 학교주변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은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 안전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각 학교들은 점차 참여를 꺼리게 되었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쌓고 있으며, 담장을 다시 쌓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우리의 학교는 이제 ‘학교 담장허물기’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라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학교설계 경향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 담장허물기’보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경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높여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CPTED가 범죄예방을 위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술 지팡이는 아니며, CPTED와 유형별 범죄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CCTV와 같은 방법시설 확충을 CPTED로 오해하고

확산·작용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주변 및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CPTED를 작용해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은 한정되어 있다. 오히려 CPTED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서 보다는 특정지역의 환경적 패턴과 국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요인들을 조작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예방 기법(전략)들이 기능적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학교의 교사(校舍)를 비롯한 건축물과 실내 공간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체육관, 야외학습장, 교내정원, 야외휴게 공간을 비롯한 각종 옥외 공간은 학교의 구성원 이외의 지역주민에게도 개방을 통해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도시의 자연녹지 감소로 학교 옥외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CPTED의 근본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범죄를 포괄하는 안전대책이 폐쇄적 디자인 적용과 보안시스템 설치로 비용이 많이 들고 사후대처방식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건축적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기법을 통해 작용범위가 넓고,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작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를 유도해 공간 및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CPTED의 장점이기 때문이다.²⁾

CPTED의 주요 실천전략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통제’의 방법뿐만 아니라 ‘자연적 감시’와 ‘활용성 증대’, ‘공동체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계획 시 주변을 최대한 많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기계경비나 인적경비에 의한 감시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함으로써 범죄와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주·부출입 공간

외에 학교로 진출입이 가능한 1차 접근 공간으로서의 학교 경계부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들은 소음방지와 학교 내 생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폐쇄형 담장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학교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자연감시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연적 감시를 위한 계획 요소와 방법시설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내·외부의 활동을 쉽게 확인하고 잠재적 범죄자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용성 증대’ 개념은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감시효과를 높이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감시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나 시설물을 디자인해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공공부문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학교 건축에서 활용성 증대는 주로 외부공간에서 작용될 수 있는데,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운동장을 중심으로 휴게공간, 자전거 보관공간, 주차공간 등이 그룹핑되어 각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일상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시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기법인 ‘접근통제’의 경우라도 자연적 접근통제는 목적지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위를 통제해 잠재적 범죄자와 일반인이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내부인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기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접근통제 방법은 상징적 장애물을 포함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공간계획에 따라서는 대상지역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며 범죄자의 도주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학교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BTL 사업과 연계되어 체육 및 문화교실 등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시설이 학교에 인접해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학교에 인접할 경우 외부인의 통제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방과 후 또는 휴일에 지역주민 사용공간과 학생 사용공간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폐쇄적 담장보다는 시설과 운동장의 배치를 계획 단계에서 조절해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

2) 대부분의 범죄는 일정한 시공간적 발생패턴과 피해대상의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CPTED의 핵심이다.

와의 접점공간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동선을 계획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분리시킴으로서 학교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복합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경우 학교 내 공간을 개방영역과 폐쇄영역으로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부인 이용영역은 주변에서 더 잘 보이고 통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 결론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복합화 및 공원화 사업 등으로 인해 공휴일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 내·외부공간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범죄예방 관점에서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학교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분명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범죄안전 환경설계에 입각해 학교환경을 폐쇄적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학교 담장을 허무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무조건 격리시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학교공간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며,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연계시키고 녹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닫힌 공간을 연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만남과 서로의 마음을 연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으로 학교를 연다면 지역사회 모두의 보살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지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 학생 등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의 학교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석진,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v.18, n.4, pp.45~56, 2011.07
2. 강석진 외, 초등학교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2013
3. 박성철, [특집] 우수사례로 보는 학교시설의 범죄예방환경설계, 한국교육시설학회지, v.19, n.6, pp.41~43, 2012.11